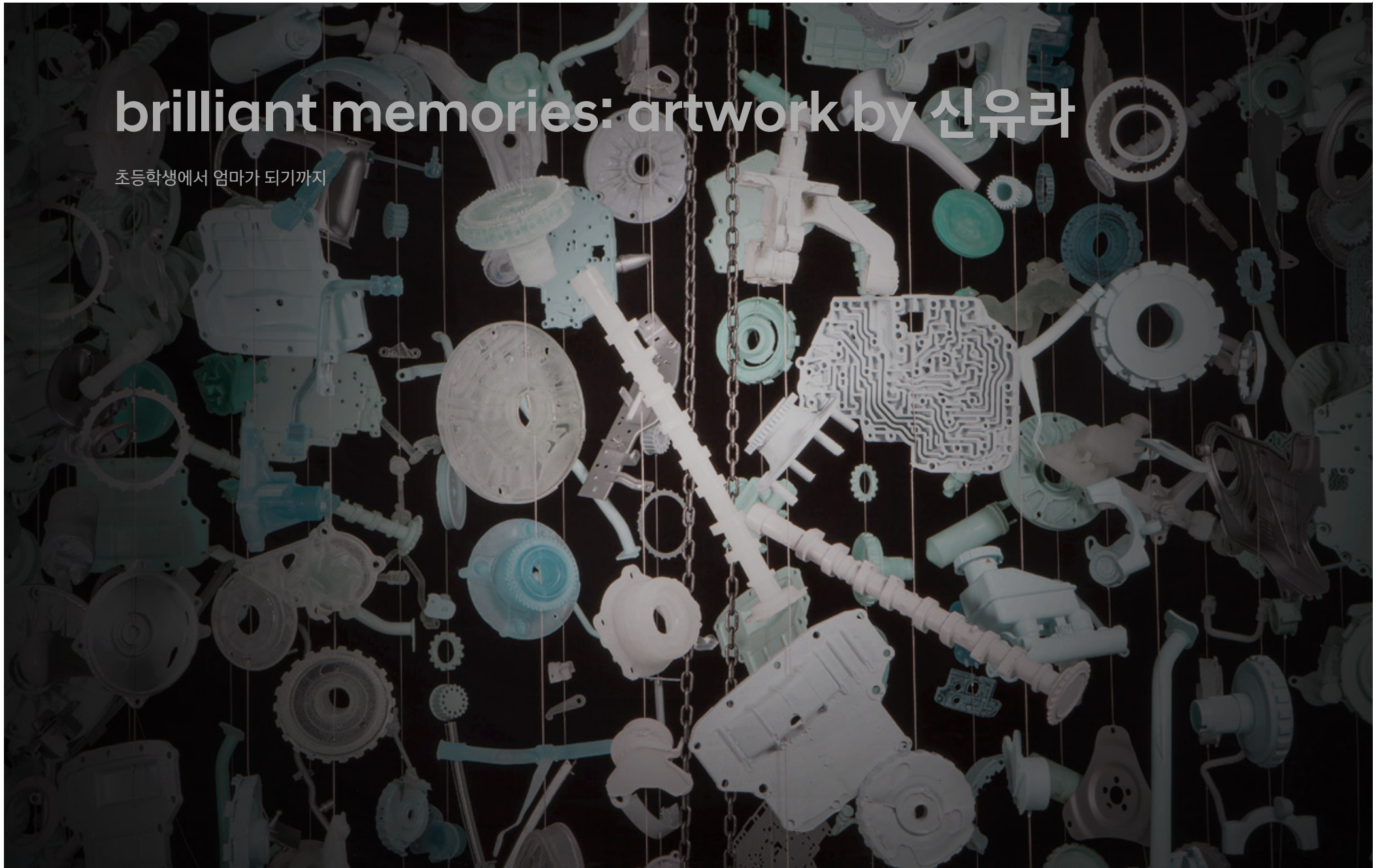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신유라

초등학생에서 엄마가 되기까지



숨겨진 기억들 · 화장 나무

신유라의 <숨겨진 기억들>은 상들리에의 모습에서 차용한 설치 작품이지만, 작품을 구성할 때 사용된 부품은 사연을 전한 고객이 1996년 처음 만난 가족 승용차 96년 아반떼의 부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사연자와 자동차 사이의 지난 관계를 조명기구를 통해 부각시키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신유라는 기성품 쥐뿔을 여러 개 이어 붙여서 쥐뿔 상들리에 조형물을 변형시킨 바 있습니다. 사물의 용도를 변경시켜서 조형적 효과를 얻는 신유라의 미학처럼, 이번 작품 <숨겨진 기억들>은 사연자 가족이 십 수년간 함께한 아반떼의 부품들로 구성된 만큼 다른 누구보다 사연을 전한 가족에게 남다른 조형물이 되었습니다. 장식과는 무관한 쓸 수 없게 된 낡은 자동차 부품을 역설적으로 장식적 조명으로 흔히 알려진 상들리에로 돌변시킨 작품입니다.

그리고 상들리에로 변신한 자동차는 그 차의 원래 주인인 고객에게도 되돌아갑니다. 비록 기동성이라는 자동차 고유의 기능은 박탈되었지만, 지난 추억을 조명으로 발광하는 상들리에 기념비로 되살아서 돌아오게 만든 것이 이 작품의 의도일 것입니다. 신유라가 제작한 소장용 작품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엄마가 될 가족의 승용차인 아반떼와 함께했던 사연자의 성숙을 기리기 위해서, 여성용 화장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연자가 여동생과 차의 백미러에 스티커를 붙이며 놀았다는 회상을 바탕으로 신유라는 화장대에 쓰인 거울을 차량의 백미러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또다시 차에 대한 사연자의 추억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글 · 반이정



[brilliant memories] 작가 신유라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1996년 9월, 우리 집에도 자가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저는 보자마자 ‘반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반떼는 항상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어느새 20대 중반을 넘어서 저와 아버지와 같은 군인을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7살이 되던 어느 새벽, 반떼의 도움으로 무사히 임마가 되었습니다. 처음의 반짝거림은 사라지고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에게도 반떼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다들 만류합니다. 고마운 반떼와 헤어질 수 있을까요.

작가 신유라



작가 인터뷰

20년을 함께 해준 친구.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가족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연자에게 오랜 친구 ‘반떼’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구를 만들어주고 싶네요.

프로필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모순과 부조리한 상황을 작업으로 가져오는 신유라는 일상 사물들의 예기치 않은 결합을 통해 새로운 맥락을 형성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회화과 졸업 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섬유미술과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2015년에는 Nine Dragon Heads 멤버로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예정입니다.